8강 욕망과 억압 2

(1교시)

◆ 원억압과 함께 탄생한 원국가

※ 학습목표
원억압과 함께 탄생한 원국가

▲ 의식적 투여와 무의식적 투여
계급적 이해의 투여와 리비도적 충동의 투여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둘은 본성상의 특질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전자는 (전)의식적 관심의 투여이고 후자는 무의식적 충동의 투여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말처럼 전자는 후자의 승화로 인해 변성된 투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융의 말처럼 애초부터 다른 투여인데 후자의 성적인 투여가 전자의 사회적 투여를 종교적으로 신비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들뢰즈-가따리는 사회적 생산의 에너지와 욕망생산의 에너지를 질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리비도 경제학은 정치경제학 못지 않게 객관적이요, 정치 경제학은 리비도 경제학 못지 않게 주관적이다."(506)
구분의 선은 (전)의식과 무의식, 사회적 의식과 성적 무의식 사이가 아니라 몰적 투여(investissement molaire)와 분자적 투여(investissement moléculaire) 사이에 그어져야 합니다. '투여'라는 말은 에너지가 어떤 장소를 충전시키거나 어떤 영토를 점유하거나 어떤 대상에 공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욕망의 투여는 항상 집합적입니다. 욕망의 에너지가 <기관 없는 신체>에 투여될 때 거기에는 항상 다수의 부분대상들 사이의 접속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 리비도를 투여하는 게 아닙니다. 부분대상이 부분대상과 접속하면서 두 부분이 공통으로 놓이는 <기관 없는 신체>에 에너지를 투여하면 그 위에 어떤 장(champ)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여는 항상 부분들의 집합을 통해 일어납니다. 집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자적 집합으로, 브라운 운동을 하는 분자 알갱이들처럼 탈영토화하고 탈코드화하는 집합입니다. 분열증적 집합이죠. 또 하나는 몰적 집합으로, 특정한 화학적 성질이나 예측 가능한 운동성을 지닌 집합입니다. 유기적으로 통합된 집합이죠. 욕망의 에너지는 이 두 집합의 체제상의 차이에 따라 몰적으로 투여될 수도 있고 분자적으로 투여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중은 억압을 욕망하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욕망의 몰적 투여에서 찾아야 합니다. 욕망의 몰적 투여란 분자적인 입자들을 단일한 속성을 지닌 집합체로 통합하면서 욕망의 에너지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관 없는 신체>는 말 그대로 기관들이 없는 매끈하게 충만한 신체가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쉬레버가 신에게 박해받는다고 느끼는 편집증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를 이렇게 느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편집증적 신체는 기관들을 배척하는 반생산에 돌입합니다. 마치 죽음을 욕망하는 것처럼 욕망생산에 적대적인 상태가 됩니다. 욕망하는 생산이 억압의 생산으로 돌입하는 것은 이런 편집증적 투여 속에서입니다.

▲ 원억압과 초자아
프로이트는 욕망의 편집증적 투여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반생산을 '원억압'이라고 불렀습

www.artnstudy.com

니다. 원억압이란 의식으로 진입하지도 않은 욕망의 표상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표상이 현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억압하는 작인(agent)은 무엇일까요? 자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의식의 작인이므로 의식으로 진입하지도 않은 표상을 미리 검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되지도 않은 표상을 미리 검열하는 이 놈은 분명 무의식에 속하며 개별 인간의 탄생 이전부터 유전되어 온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그것을 초자아(Über-Ich)라고 부릅니다. '초자아'라는 심리적 작인을 처음으로 제기한 「자아와 이드」(1923)에서 프로이트는 초자아를 집단 무의식의 차원에서 계통발생적으로 유전되어 온 것으로 설명합니다. 프로이트는 초자아를 자아-이상(Ichideal)으로 바꿔 쓰기도 하는데 자아-이상은 어머니의 젖가슴에 대한 대상 리비도 이전의 아버지-동일시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최초의 대상은 '어머니'라는 애정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동일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젖을 주니까 애정의 대상이 될 근거가 있지만 아버지와의 동일시는 개체 차원에서는 도대체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프로이트는 어머니에 대한 리비도 집중을 철회하게 만드는 이 초자아(자아-이상)의 출처를 집단 무의식의 계통적 유전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정신 속에는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도덕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도덕, 그리고 사회적 감정…이것들은 아버지 콤플렉스에서 계통발생적으로 습득된 것이었다."(『쾌락원칙을 넘어서』, 「자아와 이드」, 127) 따라서 프로이트가 제기한 '원억압'과 그 작인으로서의 '초자아'는 계통적으로 유전된 집단 무의식의 차원에 속합니다.

▲ 주인의 전쟁과 노예의 법

프로이트의 '원억압'과 '초자아'는 욕망을 억압하는 욕망생산, 억압을 향한 욕망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 (프로이트의 해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줍니다. 흔히 '양심'이라 부르는 '내면의 도덕법'과 '자기 징벌의 욕망'은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개별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출현한 게 아니라, 인류의 계통발생적 역사 속에서 '느닷없이' 출현했으며 집단 무의식 속에 추상의 형태로 유전되어 왔습니다.

프로이트는 『토템과 타부』(1913)에서 원억압과 초자아가 인류의 선사 시대에 출현한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최초의 원시 무리는 여자들을 둘러싼 항구적인 전쟁 상태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집단은 패배한 집단을 무리에서 쫓아냅니다. 프로이트는 이 두 집단에 가족의 호칭을 부여해 승리한 집단을 '父郡' 패배한 집단을 '子郡'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추방당했던 형제들이 힘을 합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부군을 결딴낸다."[1] 만약 승리한 자군이 부군처럼 여자들을 독점하고 패배한 부군이 자군처럼 다시 공략해 온다면 상황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군, 즉 주인(승리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전쟁상태에서는 부군과 자군의 비대칭적 호칭이 의미가 없습니다. 승리한 부군과 패배한 부군만 있을 뿐입니다. 주인과 주인의 전쟁, 힘의 의지와 힘의 의지가 충돌할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문득" 부군을 몰아낸 이 자군(형제집단)은 스스로 부군이 되기를 포기함으로써 '자군'이라 불릴 만한 집단, 주인 되기를 포기한 집단, 즉 노예의 기질을 타고난 집단입니다. 이 노예(형제) 집단의 승리에 의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서가 창출됩니다. "이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조직, 도덕적 제약, 종교 같은 것들이 비롯되었을 것이다."[2] 원시사회가 종식되고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법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이전

1)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윤기 역,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06, 「토템과 타부」, 215쪽.
2)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윤기 역,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06, 「토템과 타부」, 215쪽.

www.artnstudy.com

과 같은 여자쟁탈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법. 소위 '만인에 대한 전쟁'이 '만인에 대한 금지'로 바뀝니다.
어떻게 이런 비약이 일어났을까요? "죄의식" 때문입니다. 원시사회로부터 추방되었던 이 새로운 '국가인'(형제집단)들은 '힘의 의지' 대신 원한과 죄의식을 계발해낸 자들입니다. 이들은 부군을 증오와 애정의 복합물(complex)인 원한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먹어 놓고는 죽은 아버지에 대한 애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짓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이어서 죄의식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무리 전체의 집단적 자책과 일치하게 된다. 이로써 죽은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욱 강력한 아버지가 된다."(「토템과 타부」, 217) 죽은 아버지는 신이 되고 '국가인'들은 자기가 만든 법의 노예가 됩니다. 그들은 사회적 법 역시 언제든 힘의 의지에 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예 자기 내면에 법을 새깁니다. 그래서 힘에의 의지, 즉 욕망이 생길 때마다 죄의식도 함께 생기고 죄의식을 느낄 때마다 욕망을 의심하는 악무한의 심판에 스스로를 옭아맵니다. 그 내면의 법정을 지키고 있는 판사가 초자아입니다.

▲ 원국가와 만인의 전쟁

들뢰즈-가따리는 프로이트가 제시한 '원억압'과 함께 탄생한 국가를 '원국가'(Urstaat)라 부릅니다.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말한 것처럼 이 "가장 오래된 국가"의 창립자들은 "운명처럼 오는 것이며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도 고려도 구실도 없다. 이들은 번개처럼 거기에 와 있는 것이다"[3] 국가의 창설자들이 '느닷없이' '아무런 이유도 고려도 구실도 없이' 나타났다는 것은 "국가는 계약에 의해 비롯된" 게 아님을 강조한 말입니다. 국가는 어떤 역사적 필요나 논리적 필연에 의해 출현한 게 아닙니다. 국가의 창설자들은 '계약'이나 '합의'가 아니라 순수한 힘의 의지를 가지고 '외부'에서 '우연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국가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 자는 국가의 창설자들이 아니라 '국가인'들입니다. 들뢰즈-가따리가 "도시의 도착자"(292)라고 부른 성직자와 공무원들이 국가 창설자의 힘의 의지에 신적인 필연성을 부여했고, 신민들은 신앙으로 국가를 믿었습니다.
국가의 창설자와 국가인은 프로이트의 역사적 가설에서 '아버지집단'과 '아들집단'으로 불려집니다. 나중에 '신'과 '초자아'로 섬겨지게 될 이 '아버지집단'은 힘의 의지(욕망)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문득" 들이닥친 아들집단은 그 '힘의 의지'를 신의 권능으로 바꾸면서 인간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배제시켰습니다. 욕망은 불가능한 것이 되었고 욕망의 억압이 만들어낸 법과 죄의식의 질서가 유일하게 가능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질서는 이처럼 초월적 일자의 배제된(불가능한) 욕망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억압의 질서입니다. 초월적 일자의 존재가 욕망의 흐름들을 단일하게 통합하는 이와 같은 방식을 들뢰즈-가따리는 '초코드화'(surcodage)라고 부릅니다.
아들집단이 아버지집단의 욕망(힘의 의지)을 불가능한 신적 권능으로 바꿔 놓은 것은 그들이 애초부터 아들의 기질, 즉 노예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추방된 황야에서 그 기질에 적합한 죄의식의 신앙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태인 프로이트는 그 신앙의 필연성에 본능의 필연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홉스의 '만인 전쟁론'을 끌어옵니다. "문명의 금지가 해제된 상황을 상상해 보라. 예컨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아무나 닥치는 대로 성적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사랑의 경쟁자나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은 주저없이 죽일 수 있고, 남의 물건을 임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면...문명이 폐지되

3) 프리드리히 니체, 김태현 역, 『도덕의 계보/이사람을 보라』, 청하, 1991, 94쪽.

www.artnstudy.com

면 남는 것은 자연상태일 것이고, 그것은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4] 홉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여자를 둘러싼 전쟁상태를 ‘사회’로 보지 않고 자연상태로 봅니다. 프로이트의 역사적 가설에서 최초의 여자 쟁탈 전쟁은 삐에르 끌라스트르가 말한 것처럼 원시사회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5]

4)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역, 『문명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환상의 미래」, 185쪽.
5) 삐에르 끌라스트르, 변지현·이종영 역, 『폭력의 고고학』, 울력, 2002, 286쪽.

www.artnstudy.com

8강 욕망과 억압 2

(2교시)

◆ 사회체의 죽음과 기관 없는 신체

※ 학습목표
사회체의 죽음과 기관 없는 신체를 이해한다

▲ 교환이 부재하는 원시사회
여자를 포획하는 것은 원시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산행위입니다. 여자쟁탈전쟁의 중요성은 여성의 생산력이 주는 경제적 이득보다 전쟁 자체에 있습니다. 원시사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여자를 교환하지 않고 훔치거나 약탈하는 것은 원시사회가 교환을 회피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환은 원시부족들 각각의 단일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교환이 이뤄지면 부족들 사이의 차이가 소멸될 위험이 크고, 그런 외부적 차이의 소멸은 내부적으로는 재화의 축적을 불러와 계층적 차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사회에서는 교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증여의 형태를 취합니다. 전쟁은 "상이한 공동체들 사이의 사회-정치적 관계의 총체로서의 교환"(『폭력의 고고학』, 289)을 피하게 하여 부족의 단일성을 유지시킵니다. 그렇다고 원시사회의 전쟁이 '만인 사이의 전쟁'으로 치닫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인 사이의 전쟁은 원시사회가 "그 발생을 막기 위해 애썼던 정치적 관계를 성립"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체계가 사회적 위계체계로 변질되어 명령-복종 관계를 내포하는 분화된 사회(국가사회)가 될 위험을 막기 위해 그들은 느닷없이 전쟁을 중단했다가 다시 일으키기를 반복합니다. 항구적인 교환의 질서에도, 항구적인 전쟁의 질서에도 대항하는 것이 원시사회의 전쟁기계입니다. 오히려 무자비한 학살과 만인 사이의 전쟁은 국가가 출현하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 죽음본능과 욕망의 억압
국가를 수립한 사람들은 이렇게 계약의 습속이 몸에 벤 사람들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계약의 습속에 본능의 필연성을 부여했습니다. 문명인들에게는 욕망을 포기하고 억압(복종과 예속)을 욕망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본능을 '죽음본능'이라 불렀습니다. 죽음본능이란 「쾌락원칙을 넘어서」(1920)에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본능은 리비도가 대상을 향하는 성적 본능과 리비도가 자신을 향하는 자아본능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자아본능과 성적 본능의 이분법을 에로스적 본능과 죽음본능으로 재편합니다. 이런 재편의 근거는 리비도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본능의 현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리비도 경제학은 쾌락원칙에 따라 불쾌의 자극을 피하고 리비도의 양을 항상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데 여러 임상사례가 보여주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경증자들이 치료에 저항하면서 증상의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쾌락원칙을 넘어서 작동하는 이 본능적 현상의 원인을 그는 죽음본능에서 찾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도운 것은 역시 "생물학적 원리"입니다. 생물은 무생물에서 출현하여 다시 무생물 상태로 돌아간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에 착안하여 가장 안정된 상태의 에너지는 결국 무기물의 열평형 상태이므로 쾌락원칙의 궁극적 목표와 죽

www.artnstudy.com

음본능은 일치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죽음본능은 유기체의 해체를 향해 은밀히 작용하는데 그 자체로 나타나는 일은 없고 일부가 외부 세계로 돌려져 공격과 파괴본능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공격본능은 문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문명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강력한 동일시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지지하고 우정 관계로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목적 달성이 금지된 리비도를 대규모로 불러일으킨다"(「문명속의 불만」, 296) 집단을 단결시키기 위해 불러일으키는 "목적 달성이 금지된 리비도"가 바로 공격본능입니다. 이웃에 대한 공격본능이 자기가 속한 집단을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현상을 프로이트는 당시 만개하던 민족주의 열풍에서 생생히 목격합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공격본능이 "목적 달성이 금지된" 형태로 야기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명사회의 이상적 요구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입니다.(「문명속의 불만」, 296) 이것은 초자아의 요구입니다. 즉 이 요구는 자아로서는 달성하기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초자아는 이 요구를 이웃에 대한 공격본능과 함께 발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욕망의 표상까지 함께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자아의 법(양심)이 자아의 법과 다른 점입니다. 자아는 외부 현실의 제약에 근거하여 욕망을 억제하지만 초자아는 내면의 이드에 근거하여 억압합니다. 초자아의 징벌은 이드를 증거로 하여 내려지기 때문에 "자아는 아무리 고분고분하게 욕망을 억제해도 초자아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초자아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은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문명속의 불만」, 317) 도덕적인 인간일수록 초자아는 더욱 엄격해지고 의심이 많아져서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자신을 나무라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초자아는 죽음본능에서 억압의 에너지를 끌어냅니다. "개인의 공격본능은 안으로 돌려져.... 자아로 향한다. 그러면 초자아로서 나머지 자아 위에 적대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자아의 일부가 그것을 인수하여 이번에는 <양심>의 형태로 자아에 대해 가혹한 공격성을 발휘할 준비를 갖춘다. 자아는 원래 외부의 다른 개체에게 그 공격성을 발산하여 본능을 충족시키고 싶었겠지만 이제 거꾸로 공격 대상이 된 셈이다. 우리는 엄격한 초자아와 그것의 지배를 받는 자아 사이의 긴장을 죄책감이라 부른다"(「문명속의 불만」, 314)

▲ 죄의식과 국가에 대한 무한부채

죄의식은 집단적 자아의 초자아에 대한 무한부채입니다. 프로이트가 본 문명은 이렇게 집단적 자아 위에 초월적 자아를 세워놓고 그에 대한 무한부채를 통해 예속을 욕망함으로써 수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정확히 '국가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국가는 원시사회의 원시경제의 독특한 요소였던 부채의 순환 체계를 전제군주에게 바치는 세금의 체계로 전환시키면서 출현했습니다. 원시사회에서 부채는 여자의 순환을 통해 친족의 외연을 확장하게 하고, 물자의 증여를 통해 부족간의 정치 경제적 동맹을 형성하며, 족장에게 관대함의 의무를 지워 그의 위신(prestige)이 독립된 권력으로 분화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국가는 이런 원시사회의 부채를 폐기하고 그것을 계량 가능하게 변형하여 전제군주에 대한 무한한 부채, 즉 세금의 의무로 전환시키면서 탄생했습니다. 원시사회에서는 족장이 사회에 빚을 지고 있었지만 국가에서는 사회 전체가 전제군주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원시사회에서는 공동체가 채권자이고 족장은 채무자이지만, 국가체제에서는 전제군주가 채권자이고 사회가 채무자입니다.
사회구성원에게 무한 부채를 지우면서 전제군주가 제공하는 것은 생존입니다. "부채는 생존

www.artnstudy.com

의 부채dette d'existence가 된다. 즉 신민들sujets 자신의 존재에 대한 빚이 된다. 채권자가 더 이상 꾸어주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갚아야 하는 때가 온다. 왜냐하면 갚는 것은 의무이지만 꾸어주는 것은 권한이기 때문이다"(298) 신민들의 잉여가치를 영유하기 위해 국가는 신민들에게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를 환기합니다. 잉여가치가 교환을 매개한다면 국가의 잉여가치(세금)와 교환되는 것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프로이트가 죽음본능으로 설명한 것은 이처럼 국가체제를 유지시키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만인 사이의 전쟁을 막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 만인의 전쟁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 사회체의 죽음과 기관 없는 신체

집단의 죽음본능은 프로이트 자신의 정의 그대로 "그 단위를 해체하여 원래의 무기물 상태로 돌려보내려는 본능"(「문명속의 불만」, 308)입니다. 프로이트는 에로스의 본능을 유기적 기관이 "점점 큰 단위로 결합시키려는 본능"으로 죽음본능을 유기적 기관들이 "그 단위를 해체하려는" 본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합과 해체의 단위를 (프로이트 자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집단으로 설정하기만 하면 죽음본능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죽음본능은 개인의 신체가 아니라 집단적 신체, 즉 사회체(socius)가 느끼는 것입니다. 사회체 안에는 생산의 "단위들을 결합하려는" 힘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에 저항하는 "단위들을 해체하려는" 힘의 의지 역시 내재해 있습니다. 사회체가 <기관 없는 신체> 상태에 돌입하는 것은 사회체 내의 탈코드화되고 탈영토화된 욕망의 생산을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지 죽음의 종말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체가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관들을 파괴하고 이전의 생산물을 불살라 버릴 때 프로이트는 거기서 죽음본능(파괴본능)을 발견하겠지만 들뢰즈-가따리는 거기서 탈영토화되고 탈코드화된 욕망의 흐름을 봅니다. 그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산되는 것은 생산 자체입니다.

프란츠 파농은 식민지 해방전쟁에 휩싸인 아프리카에서 이와 같은 <기관 없는 신체>를 보았습니다. 탈식민주의 전쟁을 수행하는 "원주민의 근육은 언제나 이주민을 공격할 수 있도록 긴장된 상태다…원주민은…근육이 늘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다"[6] 그들의 긴장병적 신체는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수립된 국가적 신체, 즉 '유기체'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편집증적 신체입니다. 탈식민주의 전쟁의 문턱에서 식민지의 사회체는 오래 전에 기입된 식민주의 권력-기관을 뱉어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기관 없는 없는> 신체의 긴장병적 국면에서 그들은 때때로 부족전쟁에서 도피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마치 혈육 상잔에 전념하는 것이 눈앞의 장애물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식민주의에 맞선 무장투쟁을 벌이는 문제와 관련된 불가피한 선택을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 양"(『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75) 부족전쟁의 광기에 휩싸입니다. 이런 편집증 기계의 국면이 지나고 "현실을 깨달은 원주민은 그 현실을 자신의 관습으로, 폭력의 실천으로, 자유를 위한 계획으로 탈바꿈시킨다."(『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78) 탈식민 민족해방전쟁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프란츠 파농은 민족해방 전쟁이 폭력을 동원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폭력의 행사는 그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주며, 각 개인은 폭력이라는 커다란 사슬의 고리들이 된다" 마치 원시사회의 전쟁이 그랬던 것처럼 탈식민 민족해방전쟁은 식민지 사회체를 단일체(totalité une)로 만듭니다. 타자(서구 제국)와의 차이를 생산하는 전쟁, 타자와의 동질화를 막기 위한 전쟁입니다.

프란츠 파농이 탈식민주의 민중폭력에서 발견한 힘은 부르주아 국가-기관의 수립에 대항하

---

6) 프란츠 파농, 남경태 역,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그린비, 2004, 74쪽.

www.artnstudy.com

는 힘이었습니다. 민중의 민족해방전쟁이 지닌 가장 큰 힘은 외부의 제국주의 권력을 뱉어내는 것보다 내부의 새로운 국가-기관이 출현하는 것에 대항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민중이 민족해방에서 폭력의 역할을 떠맡을 경우 민중은 어느 누구도 ‘해방자’로 자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95) 프란츠 파농은 탈식민주의 민족해방전쟁이 아프리카 사회를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즉 <기관 없는 신체>로 돌입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www.artnstudy.com